



적천사 괘불탱 보물지정 예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인 적천사 괘불탱(사지)과 지주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적천사 괘불탱은 1695년에 조성됐으며, 화원으로 상린(尙麟)·해운(海雲) 등이 참여했다. 이 괘불을 걸기 위한 지주도 170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괘불탱과 함께 지정 예고됐다.

박익순 기자

선돌선원서 보물급 범종 발견

서귀포시 문화재 지정 신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선돌선원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범종이 발견됐다.

서귀포시는 1월 12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 종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범종은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높이(을뉴 포함) 33cm, 무게 10kg의 작은 소종(小鐘)이다.

한명우 기자

‘국제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설립

평창 월정사가 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지역 청소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수청소년회’를 설립했다. 문수청소년회(이사장 정범)는 1월 3일 열

“지역발전위해 뜻 모았죠”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수동사암련 첫 행사

1월 18일 남양주시 화도읍, 50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재난을 부처님의 자비로 구호합시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거리탁발을 하고 있다. 작은 마을에서 이처럼 스님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여는 모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상점 안에서 유리문에 얼굴을 대고 구경하는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이날 탁발에 나선 사람들은 남양주시 수동면 15개 사찰들로 구성된 수동사암련합회 소속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

2004년 11월 사암련합회가 결성되고 나서 처음 갖는 행사다. 최근 들어 수동사암련합회(회장 혜원·대광사)는 지역민들과 다른 지역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집력이 대단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먼 단위의 작은 사암련합회도 드물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동사암련 사람들은 건립된 지 2~3년 된 사찰들이 대부분이다. 남양주시가 개발붐에

휩싸이면서 수동면 지역도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들이 이곳에 문을 열고 포교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로 활발히 교류했다.

사암련은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심전심으로 결성됐다. 조계종, 총화종, 열불종, 범성종 등 7개 종단의 15개 사찰들이 모였고, 여기에 평상시 함께 교류했던 원불교 단체인 오덕총련원도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수동면 인근의 화도읍에 위치한 송암사 원호 스님은 자신이 수동면 출신이라며 수동사암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화도읍 내의 다른 사찰들도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

수동사암련은 무량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후 매달 한 차례씩 회원 사찰들을 돌며 모임을 갖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소상히 알자는 취지에서 모임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수동면 사찰들이 이렇게 쉽게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에 불교가 기여하는 방식의 포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사암련

지진해일 피해민들기 함께 참여

봉사활동, 공동 위령법회 등 공감대

수동면 출신이며 수동사암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화도읍 내의 다른 사찰들도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

광주 무각사 합창단 창단 음악회



광주 5·18기념관에서 열린 무각사 합창단의 창단음악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 합창단 창단을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1월 15일 5·18 기념

‘대구BBS 예술단’ 초청 공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구불교방송 예술단 초청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음악회에는 송광사 회주 범홍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과 무각사 신도, 일반 시민 등 800여 명이 관람했다.

교향악단, 중창단으로 구성된 대구불교방송 예술단(단장 최경순)은 1부 공연에서 서연 스님의 플루트 연주와 중창단의 찬불가, 가곡, 교향악단의 모차르트 심포니 연주 등을 선보였다. 범홍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변화 사회에서 현실구제의 훌륭한 방편인 음악을 통해 포교하는 합창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도 인사말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된 무각사 합창단(지휘자 박신향)은 30여명의 단원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무각사에서 연습하며 각종 법회와 불교행사서서 음성공양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합회의 주요 사업도 지역 봉사활동이나 지역민 공동 위령법회와 같은 현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님들과 모임을 같이 하니 즐거워요. 더구나 지역발전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니 자부심도 생기고요. 이런 일에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원불교 오덕총련원장 정인신 교무는 수동사암련합회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수동사암련 회장 혜원 스님은 “원적사 남은 스님이나 무량사 금담 스님 등 많은 스님들께서 애쓰신 덕에 수동사암련합회가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다가가는 불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buddhanews.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해인사·고운사 등 거리탁발



의성 고운사 거리탁발 장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지원을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합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1월 18일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입제식을 마치고 거리탁발에 나섰다. 해인사 스님 50여명은 이날 대구에 2팀, 창원에 2팀, 마산에 1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나눠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21일 거창, 22일 함양, 25일 진주에서도 자비의 탁발을 이어갔다.

의성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여 명도 18일 의성과 안동 영주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구호 성금을 모금했다.

19일은 마곡사(주지 진각)와 대전·충남 지역 스님,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앞에서 자비의 탁발행사를 가졌다. 이어 22일은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가 구리지역에서, 영남불교대학(주지 우학)이 대구에서 각각 탁발을 실시했다.

한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등 조계종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가 1월 28일 오후 2시 광주에서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갖는다.

조용수·배지선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서울 홍지동 소림사

전문성·조직력으로 승부



지난 12월 초에 열렸던 소림사 거울불교학교의 어린이들 모습.

서울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소림사. 절 이름이 중국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소림사(少林寺)와 똑같은 눈길을 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닌 사찰도 드물다는 느낌이 드는 절. 하지만 이런 외형과는 달리 소림사는 지금 몇 십년을 내다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어린이 포교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소림사는 교육·포교·복지 등 종합 포교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소림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은 서초구로

고 옮겨놓듯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혜운 스님의 성격 때문이다. 혜운 스님은 지금 중학생 하나를 절에서 키우고 있다. 이 정도면 도심사찰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 법하다. 게다가 어린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불우한 어른들을 역시 그냥 보지 못하는 혜운 스님은 17년째 해마다 2차례씩 경로잔치를 열어왔으며, 불우어르신들에게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혜운 스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복지관을 운영해 본격적인 복

10년 맞은 불교학교 철저한 점검으로 유명

신도들 복지학 공부하며 복지포교에 열성

부터 위탁운영하는 내곡동 어린이집과 여름·겨울 불교학교.

벌써 10년째를 맞은 소림사 불교학교는 인근 학생들은 물론 먼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여름불교학교 때는 연비와 수계를 하고 겨울불교학교 때는 포살을 한다. 그리고 박물관 탐방이나 사찰 순례도 한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이다.

작년 6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위해 소림사는 막대한 재원을 쏟았다. “아이들 가르치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주지 혜운 스님의 소신 때문이었다.

주지 혜운 스님은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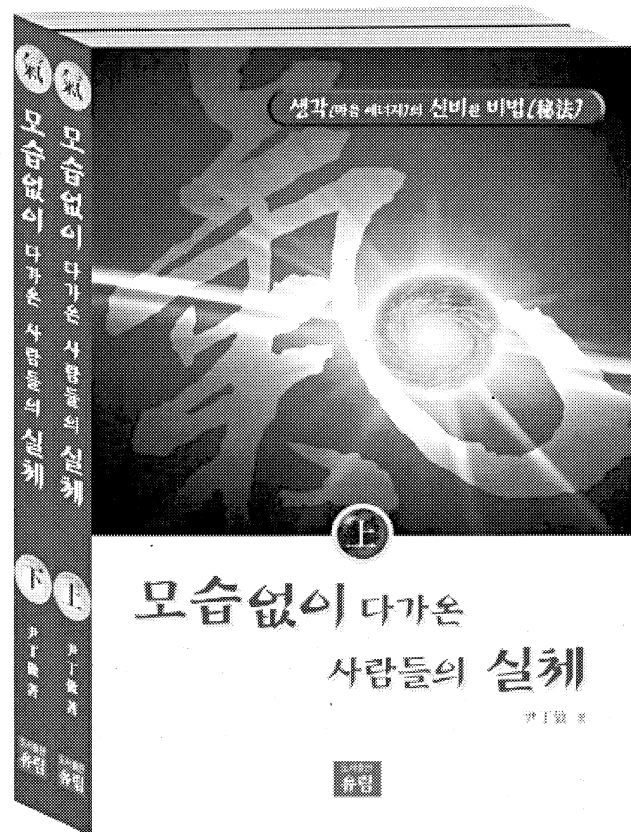
지포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복지학 공부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 신도는 이미 2급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여현 스님(재무)은 동국대 불교복지학 과정에 편입할 예정이다.

소림사는 신도교육 역시 체계적이고 질이 높기로 유명하다. 기초교리 과정만 2년이고, 이 과정을 마쳐야만 경전반에 편입된다. 봄·가을로 연수회도 갖는다. 신도회 조직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다.

소림사 주지 혜운 스님은 무엇이든 드러내길 싫어한다. 언제나 말없이 먼저 행하며 모범을 보인다. 그런 속에서 소림사의 꿈은 영글어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www.jinryeo.com



우리가 하는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자 : 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대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이 광고는 여주 송영수씨의 배려로 게재 됩니다.

도서출판 슈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